

여성가족간호자의 치매노인 돌봄경험: 여성주의적 접근

이 봉 숙¹⁾ · 김 춘 미²⁾ · 이 명 선³⁾

서 론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족간호자의 대부분은 배우자나, 딸 또는 며느리인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예가 높다(Aranda & Hayman-White, 2001; Carlson, Ottenbreit, Pierre & Bultz, 2001). 이러한 현상에 대해 Yates(1999)는 사회가 부여한 도덕적 윤리적 행위규범의 측면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병든가족을 돌보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이며 간병에 대한 책임회피는 도의적 측면에서 일탈행위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환자와 극진한 감정적인 친밀감이 없을지라도, 며느리이기에, 혹은 배우자이기에 돌봄제공을 생활규범으로 인식하고 수행해야하는 예를 흔히 목격할 수 있다. 더구나 노부모 부양에 있어 여성, 특히 며느리의 돌봄행위는 전통적 성역할 이데올로기측면에서 강한 문화적 전통으로 자리매김 되어오고 있다(Jeong, 2002).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미덕차원에서 당연히 되어진 여성가족중심의 돌봄제공 현상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권력 및 억압 기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은 당연한 발로인지도 모르겠다. 즉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여성가족중심의 돌봄제공은 가사노동의 연장선상에서 가치평하된 영역으로 해석되어지고 있다(Choi, 1998; Kim, 1995; Shung, 2002). 이에 대해 Jeong(2002)는 여성을 여성 한 개인이 아닌 가정 및 가족과 동일시 함으로써 가족내의 관계적 위치 속에서 여성에게 존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러한 여성의 가사노동행위 자체를 무보수 노동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가치적 측면에서의 인식이 전혀 이루어

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비단 가족구성원 뿐만 아니라 여성 자신도 여성으로서 또는 아내 혹은 며느리로서 당연한 의무로 인식하고 있어 남성에 비해 돌봄제공에 대한 높은 의무감 및 책임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ney, 1989). 따라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는 여성에게 부여하고 있는 가족이라는 의미를 여성억압 및 종속의 장으로 보았으며 이를 유교문화의 산물로 지적하고 있다(Lee, 1996). 즉 남녀 차별을 제도화하고 가부장제를 확고히 함으로써 여성을 구조적으로 억압하는 사회문화적 규범을 여성억압의 본질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규범적 여성억압 속에서 노부모 돌봄을 가족내적인 여성의 의무 영역만으로 국한시켜 그 중요성을 축소시키기에는 많은 미진함이 있다. 급변하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대두되고 있는 현실적 노부모 돌봄 사안은 이미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Lee(1999)와 Kim & Cho (1991)는 남성 부계중심의 가족원리의 약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그리고 교육수준 및 소득의 증대 등을 언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치매와 같은 만성질환 이환율의 증가도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돌봄제공에 부여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로 여성돌봄수혜자를 들 수 있다. Jeong(2002)에 따르면 노인인구의 2/3가 여성노인이며 이들은 남성에 비해 만성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고 거동불편으로 인한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서 남성에 비해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여성이 연상의

주요어 : 여성주의, 질적연구, 가족간호자, 치매

1)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2) 여주대학 간호과 교수, 3)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투고일: 2004년 5월 3일 심사완료일: 2004년 7월 9일

남성과 결혼하는 것이 보편적 사회현상이었으며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평균수명 또한 6-7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Shung, 2002). 따라서 돌봄제공은 물론 돌봄 수혜자 역시 여성이 주를 이루게 됨을 인지해 볼 수 있다. 즉 노령화사회에서 사회적 이슈는 여성의 이슈라는 귀결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초점을 두고 그 여성의 관점에서 그들의 경험을 조명하고자 하는 활발한 움직임은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기존에 수행되어진 많은 연구에서는 노인 돌봄수혜자 또는 돌봄제공자라는 무성적 또는 남성중심적 관점에서 여성의 경험을 다루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치매노부모 돌봄이란 행위를 통해 여성주의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풍성한 결과의 생산을 기대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돌봄행위는 성인지적 관점인 여성주의적 관점을 통해 가족과 사회의 성불평등적 맥락 속에서 행위 제공자와 수혜자인 여성에 초점을 두어 재조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치매노부모를 돌보고 있는 여성의 경험은 어떠한가”에 초점을 두어, 돌봄의 기제 속에 내재되어있는 여성억압의 본질을 파악해보고 이에 대한 변화의 실천적 방안을 간호학적 측면을 토대로 모색해 보고자했다.

연구 방법

치매가족을 돌보고 있는 여성가족간호자의 경험세계를 여성주의적 관점 틀을 적용하여 탐구하였다. 여성주의자들은 이 세계를 남성중심의 성 불평등 사회로 규정하고 여성이 받아야 하는 가치평화와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양성평등의 권리와 자유획득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Strang, 2001). 이를 위해 지속적인 여성주의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 연구를 통해 여성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 여성 스스로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변화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천적 행위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Hall & Stevens, 1991; Sigsworth, 1995). 비록 King(1994)은 여성주의 연구를 위한 특별한 연구방법론은 없음을 언급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주의 연구에서 지향하여야 할 보편적방법틀을 담고 있는 Harding(1987)의 견해를 적용하였으며 이는 6가지로 나누어 설명되어질 수 있다: 1) 여성의 경험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2)논리 실증적 접근을 통해 여성의 경험이 진리라는 타당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3)현상에 대한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과의 관련성이 연구설계, 진행 그리고 해석적 측면에서 나타나야하며, 4)여성을 위한 연구질문이 이루어져야하며, 5) 연구자의 배경, 인종 그리고 사회계층 등이 연구자로서

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한다. 그리고 6)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 수평적 관계로 상호작용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접근 틀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험이 진리라는 타당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반복 순환적인 질문으로 이루어진 인터뷰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경험에 대한 진실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심층적으로 접근하였으며, 이러한 의도는 연구설계, 진행 그리고 결과 해석적 측면에서 깊이 반영되어졌다. 연구질문에 있어서도 무성적 접근이 아닌 여성을 위한 여성에 초점을 두어 연구참여자의 자아성찰적 내용이 풍부한 자료만이 선별되어 사용되어졌다. 이러한 자료들은 또한 수집 동안 참여자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서로 간에 상호작용적 유대감을 증진시킨 가운데 얻어진 것들이다.

자료수집

이 연구는 2차 자료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2명의 연구자가 각각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경험을 토대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1차 자료를 “여성돌봄제공자로서의 돌봄경험은 어떠한가” 라는 새로운 연구질문에 초점을 두어 2차 분석된 결과이다. 1차 자료중 하나는 강원도 중소도시권에 거주하는 대상자를 눈덩이식 자료수집방법을 적용하여 진행된 석사학위 논문자료이며, 또 다른 하나는 서울, 경기 도시권지역의 5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박사학위 논문자료를 2차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1차 자료는 1999년과 2000년에 각각 수집된 자료로 총 25명의 치매가족 돌봄제공자의 경험을 인터뷰한 자료들 중 여성본인의 자아성찰적 내용이 풍부한 10명의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자료로 삼았다. 일차 분석자료가 서술묘사적 방법을 적용한 가족중심적 노부모 돌봄에 따른 유교적 한국문화와 근거이론을 적용한 돌봄역할 대처과정에 각각 초점을 두었다면, 2차 자료분석은 가족간호자의 치매가족 간병 경험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여성참여자는 며느리 7명, 배우자 2명, 손녀딸 1명 이었으며, 연령은 27세-62세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한 자료분석은 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상황 설명적 차원의 자료분석방법인 주제내용분석방법이 적용되었다 (Brink & Wood, 1989; Cavanagh, 1997). 주제내용분석은 연구질문을 중축으로 하여 맥락에 근거한 상황적 분석방법으로 자료가 품고 있는 의미와 연구가 의도하

고 있는 목적 그리고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되어지는 체계적인 분석과정이다(Cavanagh, 1997; Downe-Wamboldt, 1992). 이러한 분석 틀을 적용하여 수집된 자료에서 공통으로 대두되는 성역할 이데올로기의 남성중심 가부장적 기제속의 여성억압의 특성을 치매가족 돌봄의 행위를 통해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연구의 질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자료분석의 초점을 정한 후, 자료를 반복하여 읽음으로써 각 자료가 담고 있는 맥락 속에 익숙해져 본질적 의미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가부장적 남성주의와 여성억압적 기제에 초점을 두고 여성으로서의 자아성찰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부분을 모두 선택하여 개방코딩하였다. 이렇게 코딩된 부분은 다시 그 의미를 빈도는 물론 관련성 등으로 나눈 후 각 의미들을 내포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6개의 주제로 통합 분리되어졌다. 자료 분석 전반에 걸쳐 두 명의 연구자 및 질적연구 전문가 등이 각각의 주제 도출 과정에 참여하여 의미의 관련성과 함축성 그리고 포괄성 등에 따른 타당성을 높일 수 있었다.

이로서 주제내용분석방법을 적용한 2차 자료분석은 일차자료에서 다루지 않았던 여성주의적 개념 틀을 적용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기존자료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견해(Thorne, 1994; Yi, 2004)를 가지고 접근해 보고자 했다. 또한 일차자료 수집 시 연구참여자와의 충분한 상호작용 및 유대감을 형성한 후 얻어진 풍부한 자료였으므로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은 또 다른 폭넓고 다양한 개념 및 의미의 생산을 가져다주어 간호지식체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2차자료분석이 갖는 강점이 부각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차자료분석과는 달리 자료수집에 대한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다(Yi, 2003)는 잇점 또한 내포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2차 질적 자료분석만이 갖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자료자체의 풍부성, 자료의 접근성, 분석절차에 대한 제한성 및 윤리적 측면이 2차 자료분석이 갖는 제한점(Yi, 2004, p. 27)으로 뚜렷이 대두 되어지고 있어, 이점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리라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차 자료 수집 시 학술목적에 따른 자료활용에 대한 대상자들의 동의가 이루어진 자료를 대상으로 함은 물론, 일차자료의 출처를 제시해줌으로써 2차 연구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Thorne, 1994; Yi, 2004; Yi, 2003), 반복 순환적 인터뷰질문을 통해 얻어진 자료는 돌봄제공자의 경험이 진실이라는 타당성(Harding, 1987)을 인식해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자기 성찰적 내용이 풍부한 자료를 선별하여 자료자체의 풍성함을 추구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여성주의 연구의 핵심인 자아성찰성(Pursley-Crotteau & Stern, 1996)에 근간을 둔 것이다. 따라서 2차분석 연구방법의 제한점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1차 자료와의 방법론적 패러다임에 따른 한계(Yi, 2004)를

보완해 볼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치매노인을 돌보는 여성의 경험에 대하여 주제내용분석방법을 통해 여섯 가지의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돌봄행위 감독자로서의 남성, 가족이 알아주지 않는 돌봄, 돌봄기제 속에서 여성자신 지키기, 가족이기주의에 희생된 돌봄, 본보기로서의 돌봄, 그리고 돌봄으로 인해 대두되는 가족 간의 여성관계. 우선, 첫 번째 돌봄행위 감독자로서의 남성이란 여성가족의 돌봄행위는 가족이라는 맥락 속에 잠재되어있는 남성과 여성의 뚜렷한 역할분화로 나타나는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다. 가족이 알아주지 않는 돌봄이라는 두 번째 주제를 통해서도 남성중심사회에서 돌봄행위가 가족구성원들로부터 어떻게 인식되어 오고 있는가를 중심축으로 삼았다. 세 번째, 돌봄기제 속에서 여성자신 지키기란 주제에서는 돌봄행위 속에서 돌봄제공자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어기제를 나타내주고 있으며, 가족이기주의에 희생된 돌봄은 체면중시 사회풍조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다섯 번째 본보기로서의 돌봄은 세대간 역할모델로서의 측면을 부각시킨 대목이며, 마지막 주제인 가족간 여성들과 돌봄 속에서는 가족 내 같은 여성들 사이에서 관계적 서열로 인해 나타나는 시각적 차이와 이를 통해 대두되는 사안에 초점을 두었다.

돌봄행위 감독자로서의 남성

돌봄행위 감독자로서의 남성을 통해 도출된 가족 내 남성의 존재는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성의 행위를 통제하고 조정하며 한 가족을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로 자리매김 되어있었다. 이는 남성가부장성의 일면을 나타내주는 대목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노부모 부양에 있어 헌신하도록 강요하고 요구하는 존재로 인식되어지고 있었으며, 아내는 남편이 알아서 돌봄행위 수행에 따른 방향설정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을 뒷받침해주는 내담자들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엄마가 혼부세인 근데 하두 킴이드시니까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시면 아빠는 엄마(할머니)니까 마음이 아프셔서 엄마에게 뭐라고 하시고....엄마는 농사일도 해야하구 할머니도 돌봐야하구, 도와주는 사람은 없지 그러니까, 또 몹은 아프고 그러니까....엄마가 나쁜 마음이 있어 그러는게 아니라 너무 킴이드시니까 근데 아빠는 또 그게 속상하시니까 뭐냐구 하시는거구....

.....가족간에 이걸 이렇고 저건 저렇고 따지건 따지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큰 아주버님도 계시고하니깐, 우리는 장남도 아니고 앞으로 어머니를 이태저태 모셨으면 좋겠다 하구 할말은 하구 넘어갈 수 있잖아. 남편은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 내가 나서야 되고 그러다보니 다(형제들 갓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대요....

또한 돌봄행위에 있어서 여성은 행위주체로서 직접적인 수발행위자인 반면 남편은 주로 수발조력자(감독자) 및 가계경제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밤 12시건 새벽 4시건간에 어머니 때문에 내가 잠도 못자고 그대도 우리 집 아저씨는 일적 안해. 자기는 못한다. 오죽하면 내가 나는 어머니한테 사랑도 못받았는데, 당신 낳아주고 길러 준 어머니인데 왜 안하냐고 대들면 며느리가 있는데 왜 자기가 하냐고 하면서 못한다고 몰라나 하는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자기 어머니한테 힌들어서 성질부리는 것은 서운하다고 박박거리지요.

아빠는 좀 보수적이시고 집안일 같은 것은 남녀 할 일이 따로 있다고 구별하시는 편이나 그렇게 도와주고 하는 태입은 아니고.... 농사일로도 계속 바쁘시고,....업마하고 제가 할머니 병수발을 등고 있어요.

이는 다시 말해 전통적 성역할 구분에 따른 돌봄제공 행위이며 이로 인해 남성의 경우 치매노인가족 돌봄으로 인한 노동시장 측면에서의 역할변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 수발자의 경우 돌봄행위 수행으로 인해 직장이나 사업을 그만 두어야하는 역할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돌봄제공이 여성의 몫임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저는 할머니 돌보기 전에 직장생활하고 있었는데 업마가 너무 힌들어하시고 농사일도 바쁘고,.... 그리고 업마가 고령 양으로 너무 힌들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직장안두고 업마랑 같이 할머니 돌보게 됐어요.

저는 시댁 근처에 샅았지만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선 당장 누군가 돌봐드려야 하잖아. 그래서 가게를 정리하고 살건을 할치게 된거요.

이상과 같이 돌봄행위 감독자로서의 남성 속에 나타난 돌봄행위는 여성의 고유역할 영역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영역 속에서 여성역할은 남성의 지휘와 감

독아래 놓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이 인정해 주지 않는 돌봄

돌봄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따르는 힘든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내 특정인의 당연한 역할 수행으로만 인식되어지고 있어, 치매를 앓고 있는 노부모 부양으로 인한 심리적·육체적 피로와 버거움에 대해서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이 표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돌봄 행위에 대한 가치 폄하로 인해 돌봄제공자의 희생은 당연하게 인식되어지고 있어, 이로 인한 감정적 부담 분담이나 위로 등의 가족내 의사소통 또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나타났다.

아무리 장남이 모셔야하는 거라지만 너무하세요(삼촌).... 저같은 내부모에게 그러지는 않겠어요.... 언마가 바쁜 농사할 달 한 달말이라도 좀 바꿀 수 없냐고 하니깐 안 된다고.... 그분들(삼촌) 생각에는 큰며느리니까 당연히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니깐.... 장남이랑게 모든걸 다 짊어져야 하니깐 힌들죠

....다른 가족들은 흑 마음으로는 알아죽지는 몰라도 겉으로 (내게) 고마워 하는거 없어요... 어머니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이제는 내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시현관이기 때문에 형님 댁에서 어머니를 모셔왔으면해서.... 아버님이 제가 모시기 싫어서 그런 줄 알고 언짢아하시더라고요... 다른 가족들도 아픈 어머니이 먼저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제 문제에 신경쓰는거에 관해서는 아예 관심 밖이에요... (시현관 아기로 인해) 언마가 입원하라고 해서 ... 아무도 찾아오거나 전화 할 통할 없데요....

이렇듯 가족원에 의해 가치 폄하된 여성의 돌봄수행은 돌봄제공자 스스로도 돌봄가치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뭐 노인네 바 주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돈이 비싸다구 하더라고요... 내가 벌지도 못하구 있는데 기념 내가 모시고 있는게 낫지...

따라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여성이 돌봄행위를 담당할 수밖에 없으며 가치 있는 노동이라는 의미 또한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여성 돌봄제공자들은 역할 수행도중 나타나는 감정적인 분노와 버거움을 분출하기보다 참고 인내하는 감정억압의 기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감정억압으로 인해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며 가슴이 답답한 심리적, 육체적 증상이 표출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치평하된 돌봄으로 인해 여성의 인내만을 강조하고 있어 가족간의 의사소통 단절은 물론 돌봄제공자의 육체적 증상 발현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약 가슴이 땡땡하고 응어리가 진것같구 그대요. 두통하구 비슷한거 같기두 하고 가슴도 아프고...제가 떠벌리는 성격이 아니라 가슴에 주로 묻고 사는데...이처럼 좁은 바닥에서 속을 터놓고 살다느게 힘이 들어요...그대 그렇게 쌓아 놓고 사니까 그게 병이 되는거 같애요

.....내가 심장병이 생겼잖아...큰시누가 전화에다 데고 뭐라고 할 때마다...심장이 벌렁거리고...어디가서 무슨소리만 조금 들으면 전화해서 낯리낯리 치는 거야. 시누 전화만 받고나면 가슴이 벌렁벌렁 거킨다구. 이 병이 다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돌봄기제 속에서의 자기 합리화

돌봄이라는 억압기제 속에서 여성이 어떻게 자신을 지키며 역할을 수행해 가고 있는지가 이 주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 주제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일면은 돌봄을 여성 자신에게 내려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이를 여성스스로의 의식 속에 내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치매노부모 병수밖에아는것이) 아무 때 가서 넌 그런 곤욕을 겪으라는 걸 겪으려(이 세상에) 나해서 그랬겠쥬... 내 생각은 이래, 전생에 진 죄를 갚나고 이 세상에 났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요...그래서 다 하나 넌이 견지해준 데로 사는 거지....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허구한 날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에 가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치매노인을 모시는 것도 내 업이니까 업을 다 씻어 달라고 빌어요...

이러한 사고방식은 근본적으로 여성에게 주어진 사회적 규범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여성에게 무조건적 희생을 강조하는 결혼이라는 사회제도, 후처나 딸뻘 등의 여성에게 더욱 가혹하게 지워졌던 사회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더욱 여성에게만 전임된 돌봄행위를 운명이라는 자기합리화의 틀 속으로 몰아넣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이 표출되어졌다.

그 양반이 뭐 좋고 그렇고 없이 그냥 덮어 놓고 부모가 뺏어준 업이니까(혼인) 이렇게 살아라 해서 그냥 법으로 해서 사는 줄 알고 살았어요.....혹어머니한테 커가지고 이집에 후처라도 와서 뭘때나 후처가 좋다고 그러기에, 고생을 하거나 딸거나..그대 이집에 와서 죽기로 하고 여기서 그냥 여태까지 살은 거지 뭐...그리고 내가 딸자식이니까 부모 뜻을 거역할 수 도 없는 일이고.....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의 돌봄행위는 인간적인 도리의 양상으로 연결 및 강화되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역할 수 없음에 대한 체념적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날 운가 상늬이고 저는 양반의 새끼라 이거여...뺏고 살았지...상늬이라도 끝끝내 자식은 키워야하니까 잘잘 모르고 산거여...때리면 때리는데로 부수면 부수는 데로 그렇게 살았지...그렇다고 지금 아픈데 갖다가 내 버릴 수가 있어....다 내가 죄가 되지....

가족이기주의에 희생된 돌봄

가족이기주의에 희생된 돌봄은 그 행위의 순수 속성에서 나타나는 버거움과 고달픔의 차원을 넘어 타인에게 제시되는 의무이행의 증거임과 동시에 가족체면을 지켜주는 보호막으로서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치매노부모를 기관에 보내 치료 및 보호를 받게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며느리 혹은 딸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가족체면을 실추시키는 것으로 비취지지 않을까 의식하고 있었으며 가족구성원들도 가족 내적인 일을 타인이 아는 것 자체가 가족체면을 실추시키는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음이 나타났다.

작은 시누이가 아주 천사라고 다들그래....모시구 가더라구...직접해보니 못하겠거든....그렇게 시누이들끼리 8개월을 서로 돌아가면서 보기도하고....복지관에도 보내구...근데 소문이 양호원으로 보냈다고 드럽게 낯겨야...우리어머니가 다니면서 내가 방 안주고 그런다구....배고프다구 사냥들한테 토마토 먹고싶고...사냥들이 사가지고 왔더라구...우리 냉장고에 다있는 것들이지...냠들이 우리집을, 나를 뭐라고 욕을 했겠어..., 우리 체면은 뭐가 되는거야...이제는 다 안다구, 치매라는걸 다 안다구...그리구 시누들은 저런 어머니 죽어도 치매라고 안그러지...창피하다구...내가 00언마한테 우리어머니 치매라 그랬다구 나한테 전화해서 낯리를 치는거야....세상사람이 다 아는 일인데 딸이야...그러니 맨날 저렇게 쉬쉬하고 있는거여...

또한 여성 돌봄제공자에게 있어서 돌봄행위는 돌봄수혜자를 위한 육체적 정신적 보살핌이라는 측면보다 돌봄제공자 자신을 위한 행위적 측면이라는 아이러니함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는 여성(며느리)에게 부여된 책임감을 완수해 나가고 있다는 자위감에서 느껴지는 편안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었다.

난 책임감으로 왔는데 내 책임을 해야지. 난 반드시 그거야. 내 책임이니까 내가 책임을 해야지...그게 제일 편해요...약약 내가 안 모시고 어디로 보내던지 저기를 해야. 내할 도리를 못하는거 아니야...어쩔줄 몰라하구 미안해 하구 그대야 할 거 아니야...힘들터나두(모시고 있으니까); 그대도 그런건 없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따라서 가정에서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은 돌봄수혜자 뿐만이 아니라 돌봄제공자와 그 가족 모두에게 타당성과 합리화를 제공해주고 있는 속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보기로서의 돌봄

여성의 돌봄수행은 비단 사회적으로 규정되어진 의무적인 역할 이행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남편 및 기타 가족구성원의 행위 속에 비추어진 가족에 대한 사랑이 모티브가 되고 있음이 표출되어졌다. 즉, 남편 및 부모를 통한 역할모델에 영향을 받아 돌봄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제가 보기에든 참 잘하세요. 혼자세요. 물질적으로 그런게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굉장히 잘 보살펴 드리세요...아빠 딱 보여요. 근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잘하는게 보여요...언마도 참 잘하세요 근데 너무 힘이드셔서 할머니한테 가꾼 뭐라고 하는 거지...저도 잘 해야지 생각이 들어요....

.....아주버님이 기관으로 보내자구 하더라구요...그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도 어디 보내야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부모인데...남편이 참극진해요. 어머니 저렇게 되시니까(치매) 더 그런 말이 듣지 않겠어요.... 지금도 어머니 하자는 데로하고...어머니가 주로 낮에 주무시니까 밤에 어머니 옆에서 자면서 보살펴 드리려고 하구 그대요, 남편이 어머니에게 참 잘해요...그러니 저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거 같아요.

또한 여성의 돌봄수행은 가족간의 위계질서 확립을 위한 본보기로서의 성격도 함께 내포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노부

모 돌봄이라는 만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타 하부가족(시동생, 동서)으로부터 상위서열자로서의 자리매김 및 대우를 받게 되는 측면이다.

난 내 시어머니한테 딸대답 전혀 안 한다구...나 못모시네 뭐 이런소리 안한다구....난 동서들이 있어 근데 내가 그러면 안 티잖아....이제는 우리시누들도 그렇고 시동생들이 다 잘해요. 우리형수 하면서 마음적으르다가 잘해요....시동생들이 다달이 15만원씩 붙여주고 그리고 형수 애쓰다 하면서 아주 잘하려고 해요

이와 같은 본보기로서의 돌봄행위는 비단 동세대 가족간의 서열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다음세대인 행위자의 자녀에게 역할모델을 제시해 줌으로써 돌봄행위의 환원을 기대하고 있기도 했다.

어디 보니까 진짜 힘드니까 갖다 버리기도 한다지만 그대도 부몬데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도 늘상 그대(이야기를 잘). 나는 그게 왜나 우리 자식들한테 본보기야 한다더라고. 내가 그러면(부모를 버리면)내새끼들도 이담에 그렇게 하는 거라구.....

따라서 돌봄행위는 내면화된 의무 이외에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적인 양상을 띠면서 나타나고 있었다.

돌봄으로 인해 대두되는 가족 간의 여성관계

돌봄행위가 여성의 몫이지만 그 여성은 가족내 모든 여성이 아닌 특정 여성이 된다. 즉 모든 여성의 일이지만 어느 특정여성의 일로만 국한 되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이 가족내 어떤 역할적 관계에 놓여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시어머니인가 또는 며느리인가 아니면 시누이 인가 등의 부여된 어떤 관계에 따라서 돌봄의 역할은 편중되어진다는 것이다. 이렇듯 어느 한 특정인에게 부과된 돌봄 의무는 가족 내 동일여성사이의 관계적 갈등으로 흔히 발전해 나가고 있었으며 이의 갈등은 이성 간에 나타나는 가해자와 수혜자로서의 갈등보다 그 수위가 한층 더 심화되어져 나타나고 있었다.

그저 얹기만 할거여(시어머니가)...시집오던 날부터 지금 저 성격 그대로 나한테 그랬으니까. 지금은 병 때문에 더하지만 예전에도 꼭 이랬다구...아휴, 난 형 수 없어서 사는 거야. 내가 좋아서 (모시고)사는거 아니야... 그저 돌아가셨으면 하지.

우리시누들도 하여간 대타하다구. 우리 큰시누랑 그 딸으
로 학교에서 선생직한 가다가 있어갓구 나을 취장듯 했다구.
주말에 한번씩 타보면 딱정하거든, 아니 딸들 앞에서는 조용
해지데, 이상하게...그러니 나보고 딱정한 언마 노망이라
그런다고 낚치치고 잘못모시니 집 나가는거 어니냐고 나을
잡고 그랬지. 요즘엔 나보고 고상하게 병든 노인네 나물카나
하구 붓글씨 그리러 다닌다구 목하지....아이구, 전화 오는
소리랄 나도 가슴이 벅정거인다구,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구
지급.

이렇듯 관계적 차원을 축으로 형성된 가족내 여성들 사이
에서는 이해와 공감적 측면보다는 갈등적 측면이 강하게 나
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적 차원을 떠
나 여성이라는 동질적 측면에서 여성이 또 다른 여성을 바라
보면서 느끼는 측은지심적 측면 또한 함께 나타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누가 우리 어머니가 뭐 (치매에 걸려서 어떻게) 그러면 그
냥 인생 꽃으로 알고 살아야지. 우리 어머니 인생 꽃이잖아.
꽃 싫다는 사람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는게 제일 편해유. 영
마 낚지 않은 인생인데 좀더 잘 모셔보자. 나는 그거하나
진짜 자신이 강조해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한테도 봉
사하잖아. 부모에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하
겠다는거...머음 속에서도 안타까움도 있고 그런게 있으니까
모시고 사는 거지...

때로는 저것이 훗날 내 인생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유.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전 젊을 중 알고 나한테 시집살
이를 신하게 시켰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머음하
고 원령만 가졌다면 절대 못모셔유. 생전에 나 못살게 굴었
던 것 생각하면 진짜 못 모시지. 그러나 부모니까 그리고 나
도 같은 여자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지하는
애정이 있어서...

또한 사랑과 보은의 정이 함께 가미되어졌을 경우 여성간
의 유대가 더욱 깊게 나타나지기도 하였다.

(내가) 어디 갔다가 오면 우리어머니가 방해놓고. 노인네
인정은 많았다니까. 동네사람들이 다 딸같다고 그랬더니까.
저집은 며느리가 아니라 딸 같다구 그 소리까지 듣고 싶었는
데...머음속에서 항상 고맙지.

따라서 가족 내 나타나고 있는 동질여성사이의 질적 관계
는 행위자와 행위 감독자라는 가족내 위치로서 서로를 받아

들이는가 아니면 서열적 관계를 떠나 같은 여성적 차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서로 상반된 의미와 결과를 타나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논 의

치매노인을 돌보고 있는 여성가족간호제공자의 경험을 분석
해 봄으로써 여성연구자 본인은 물론 여성연구참여자들조차
인식하지 못한 여성 속의 남성가부장적 특성들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이는 Olesen(1994)이 언급했던 여성주의 연구의 필
요성이 여성 스스로 여성이 처한 현실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범위보다 더 깊이 인식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함과 일치하는
대목이기도하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뚜렷한 특징은 여성 속에 내면화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행위 규범들이 여성에 의해 체계적으
로 실행화 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Cho(1992)가 언급
한 부계혈통 중심의 가족 속에 가부장적 특성을 지닌 모계중
심의 가계운영이라는 한국적 가족문화의 특성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 결혼과 함께 여성에게 주
어진 돌봄행위는 여성으로서의 도리임과 동시에 가족간의 관
계유지를 위한 행위규범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었으며, 이의 불
이행은 일탈적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는 Yates(1999)
의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부분으로 여성의 존재가 독립적 객
체의 의미라기보다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 얽혀진 관계적 존
재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나 가족
의 의미 속에서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객체적 가치를 망각한
무력한 존재로 표출되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남성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여성 내면화는 결과
적으로 여성성의 열등성 및 여성행위의 가치평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Roberts(1983)가 지적한 억압받는 그룹의 특성인 행위
에 따른 또는 존재에 따른 열등성이 남성중심문화 속에 살고
있는 여성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경제적 능
력이 없는 여성이기에 돌봄수행을 해야 하며, 스스로의 행위
에 대해 가치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공적수발에
대한 가치 또한 인정하지 않는 악순환적 연결고리를 형성하
고 있었다. 이는 Yih(2001)의 연구에서 나타난 공적 수발에
대한 인식저하와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Yih(2001)의 연구에서는 공적 수발에 대한 정보부족과 접
근용이성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인해 대두되는 인식저
하가 강하게 대두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돌봄이라는 행위가
치적 측면에서 대두되고 있는 인식저하라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본 돌봄행위는 인내의 미

덕 속에 간혀 스스로를 확대하고(화병), 운명이라는 틀 속에 여성 자신이 처한 현실을 합리화시키면서 여성 본인이 아니면 가족이 원활히 운영되어질 수 없다는 희생과 사명감의 복합적인 심리양상 또한 표출되어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심리양상은 Schwartz(1989)가 지적한 외부적 억압이 심리신경적 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즉 외부적 억압이 주어지는 상황에서는 자신에 대한 부주의가 나타나고 이러한 부주의는 심신의 소통과정에 단절을 낳게 된다. 이러한 단절상태는 다시 부조절을 초래하고 부조절은 무질서를 불러오게 되며, 무질서는 최종적으로 질병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치매가족을 돌보고 있는 여성돌봄제공자가 경험하는 심리신경과정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여성의 치매가족돌봄 수행은 가족체면을 지키기 위한 보호막으로써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Kong(1992)이 지적한 가족이기주의의 한 단면과 일치하는 대목으로 타인의 시각이 주체의 행위(여성가족의 돌봄행위)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적인 사회가치판단의 기준에 부합되기 위해 가족 중심적 돌봄행위를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하는 일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여성 스스로 내면화한 억압기제는 다음세대 자녀로부터 보상받고자하는 보상심리로 그 극점을 향하고 있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Roberts(1983)가 제시한 유대인의 예에서 유대인은 억압당하는 그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목표와 기대가 있었으므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여성의 억압기제는 자녀로부터 보상받고자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음으로 극복될 수 있을 것인가? 아이러니하게도 이와 같은 기대는 여성의 복종성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해 주는 기재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돌봄행위의 여성적 세습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여성 스스로 억압극복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억압보상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끊임없는 억압기제의 순환적 고리가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유교문화적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 여성억압기제의 한 양상이라 표현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족중심적 억압기제의 양상은 가족내 여성 간에 대두되고 있는 갈등의 본질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고부간의 그리고 시누이간 파생되는 관계적 차원에서 파생된 갈등의 고리는 억압받은 여성 사이에서 나타나는 보상기전의 발로라 할 수 있다. 이성가족간의 갈등보다 동성가족간의 관계서열에 의해 나타나는 갈등양상이 한국사회에서 보편적 현상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음은 이를 잘 대변해 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Kim(2001)의 연구에서도 언급되어

지고 있는 중요한 일면이며 서열관계 즉 고부간에 나타나는 갈등 및 연민이 치매노부모를 돌보는 역할대처과정의 중요한 중재적 전략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성가족간의 관계적 서열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성이 또 다른 여성가족을 바라보는 동질적 측면을 함께 조명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닐 수 있다. 즉 여성이 또 다른 가족내 여성을 동질적인 개체로서 바라보는가 아니면 서열상으로 본 위치적 인간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른 시각차로 점철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어떠한 시각으로 여성이 또 다른 가족 내 여성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대립적 또는 이해적 관계로 변모되어질 수 있으며 이는 상황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주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유교문화적 맥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치매가족 돌봄제공 현상을 통해 여성주의적 관점 틀 속에서 조명해 보았다. 그 결과 돌봄행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여성억압의 기제를 6개의 범주를 통해 파악해 낼 수 있었다. 이를 구심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돌봄현상에 대한 여성주의적 인식 및 가치 부여 그리고 변화의 방향 모색이라는 실천방안을 위한 행동 전략을 간호서비스제공 및 정책차원에서 제시해 보고자한다.

우선 여성의 인식 변화적 측면을 주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여성돌봄제공자는 가족 속에서 관계적 차원으로 존재되어진 여성이라는 현실에서 객체로서의 한 인간이라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여성스스로의 노력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대상자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관계자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어지는 부분이기도하다. 이는 방문간호서비스 또는 재가간호서비스의 일환이며 확장이라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의료서비스를 환자 중심적 또는 환자의 증상 중심적 접근으로 본다면, 환자를 포함한 그 환경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의 구체적 방안으로 보건요원을 통한 카운슬링서비스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 돌봄제공자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의 부재로 오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형식에 얽매인 규정적 상담서비스가 아닌 돌봄가족 이야기를 편안히 들어줄 수 있는 심적 지지자 그리고 돌봄제공의 협력자로서 카운슬링서비스의 필요성과 제공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상담서비스와 병행하여 보건요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사안 중 하나는 질병에 대한 정확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이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장기간 치매환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음으로 보건요원보다 환자의 반응과 증상에 대해 더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건요원의 질병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이에 바탕을 둔 친필일률적 접근은 가족들로 하여금 외부적 도움에 대한 외면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중재 계획 및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육적 접근을 들 수 있다. 일선 보건요원들의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계화된 지침서개발과 이의 활용이 강조되어야한다. 지금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치매환자를 위한 지침서의 개발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이의 활용적 측면에서 그에 대한 긍정적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치매교육의 체계성 및 지속성적 측면과 지침서의 내용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피상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치매관련 다학제간 임상전문가들의 지식과 노하우 그리고 치매환자 및 보호자의 실제적 경험이 함께 가미된 실무중심의 지침서 개발과 활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간호교육 전문가 및 간호연구자들은 일선 현장전문가와 치매환자 및 보호자의 실제 목소리가 담겨진 경험에 초점을 둔 다양한 연구를 통한 건설적 방향제시가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적해볼 필요가 있다. 농어촌의 노령화와 독거노인의 증가는 어제오늘의 이슈가 아니다. 또한 노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치매라는 질병특성을 고려해 볼 때 재가간호서비스시설의 확충은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할 사안이다. 특히 일일보호소, 주간보호소, 단기보호소, 복지관, 지역봉사대 활성화, 자원봉사자 양성활성화 프로그램운영은 물론 치매전문요원의 양성 등은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시 되어지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비록 본 연구가 여성에 초점을 두어 그들의 경험세계를 여성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았으나 표본 수 및 자료적 측면에서 2차분석이 지니고 있는 제한점이 내포되어 있음을 인지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성연구자가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의 경험에 초점을 두어 여성을 위한 보다 폭넓고 포괄적인 여성주의적 연구가 추후연구를 통해 이루어져 여성을 위한 변화의 심도 있는 실천적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Aranda, S. K., & Hayman-White, K. (2001). Home caregivers of the person with advanced cancer: An Australian perspective. *Cancer Nursing, 24*(4), 300-307.
- Brink, P. J., & Wood, M. J. (1989). *Advanced design in nursing research*. London: Sage.
- Cavanagh, S. (1997). Content analysis: Concepts, methods and applications: qualitative data analysis. *Nurse Rea, 4*(3), 5-16.
- Cho, H. J. (1992). Korean family culture. *Academic Symposium at Ewha Womans University, 3*, 7-12
- Choi, S. K. (1998). Feminism and anti-feminism in America.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cademic Conference in Autumn, 369-380*.
- Carlson, L., Ottenbreit, N., Pierre, M., & Bultz, B. (2001). Partner understanding of the breast and prostate cancer experience. *Cancer Nursing, 24*(3), 231-239.
- Downe-Wamboldt, B. (1992). Content analysis: method, application, and issue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3*, 313-321.
- Finney, J. (1989). Theories of family labor as applied to gender differences in caregiving for elderly pati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79-86.
- Hall, J. M., & Stevens, P. (1991). Rigor in feminist research. *Adv Nurs Sci, 13*(3), 16-29.
- Harding, S. (1987). *Feminism methodology*.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 Jeong, K. H. (2002). Family caregiving for aged and policies for families. In Korean Women policy institutions. (Eds.), *Korean Women Policies*. MIREINYRUK Institution.
- Kim, C. M. (2001). *The coping process of family caregivers for demented elderly at home*. Doctoral Dissert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S. A., & Cho, B. E. (1991). A study of familism and family support for the aged. *Korea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9*(2), 303-322.
- Kim, U. S. (1995). Culture research and feminism-feminist Marxism and culture research. *Journal of Korean Society and Journalism, 5*, 90-115.
- King, K. E. (1994). Method and methodology in feminist research: what is the difference? *J Adv Nurs, 20*, 19-22.
- Kong, M. H. (1992). Feministic approach for critics about family-centric idealism.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1*, 167-171
- Lee, J. K. (1999). Modern Transformation of Korean family: Feminist Analysis. *Korean Women's Studies, 15*(2), 56-86.
- Lee, K. H. (1996). Korean women's health and culture. *Academic Symposium at Ewha Womans University, 11*(1), 137-145.
- Olesen, V. (1994). Feminisms and models of qualitative research. In K. D. Norman, N. K. Denzin & S. L. Yvonna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Pursely-Cotteau, S., & Stern, P. N. (1996). Creating a new life: Dimensions of temperance in perinatal cocaine crack user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6*(3), 350-367.
- Roberts, S. J. (1983). Oppressed group behavior: Implications for nursing. *Adv Nurs Sci, 5*(4), 21-30.
- Schwartz, G. E. (1989). Disregulatory theory and psychosomatic disease: a systems approach. In S. Cheren(Eds.). *Psychosomatic medicine: theory, research*

- and practic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Sigsworth, J. (1995). Feminist research: Its relevance to nursing. *J Adv Nurs*, 22(5), 896-899.
- Strang, V. (2001). Family caregiver respite and leisure: A feminist perspective. *Scan J Caring Sci*, 15(1), 74-81.
- Shung, H. S. (2002). Family caregiving for aged and women' Issues. Korean Association and Family Relations. *Academic Conference in Spring*, 67-81
- Thorne, S. (1994). Secondary analysis in qualitative research: Issues and implications. In J. Morse (Eds.), *Critical issues in qualitative research methods*(pp.263-279).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Yates, P. (1999). Family coping: Issues and challenges for cancer nursing. *Cancer Nursing*, 22(1), 63-71
- Yi, M. (2003). Secondary analysis of qualitative data: Methodological issues and implications. *Nurs Inquiry*, 12(1), 82-96.
- Yi, M. (2004). Secondary analysis: Focusing on qualitative research. *J Korean Acad Nurs*, 34(1), 26-35.
- Yih, B. S. (2001). *Korean family caregivers' experiences in caring at home for a wandering relative with dementia*. Unpublished Master Thesis: La Trobe University.

Women Caregivers' Experiences in Caring at Home for a Family Member with Dementia: A Feminist Approach

Yih, Bong-Sook¹⁾ · Kim, Chun-Mi²⁾ · Yi, Myungsun³⁾

- 1) Doctoral Student,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 2)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Yeo Joo Institute of Technology
- 3)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women caregivers' lived experiences in caring at home for a family member with dementia and to identify conditions that oppress women in the context of family caregiving. **Method:**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in the feminist perspectives using qualitative secondary data. Ten secondary data conveying self reflective contents were selected from the 25 original data obtained in 1999 to 2000. **Result:** Six themes that emerged from the qualitative thematic content analysis were; androcentric view of family caregiving, undervalued family caregiving by the family members, Self rationalization in the context of family caregiving, family-centric care mechanism, exemplary caring within the family context, and inter-familial relationships among women. **Conclusion:** The main focus of feminist research is to provide empowerment for the women research participants and to bring about social change of oppressive constraint through some actions. On the basis of the research findings, therefore, action strategies from feminist perspectives were suggested in some aspects of health care delivery sectors, nursing education and research sectors, and administrative sectors.

Key words : Feminism, Qualitative Research, Family caregiver, Dementia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Yih, Bong-Sook
Doctoral Student, 205 Sociopsychology unit,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28 Yongon-Dong Chongno-Gu, Seoul 110-799, Korea
Tel: +82-2-740-8460 Fax: +82-2-765-4103 Email: yihdoh03@snu.ac.kr